

보도 일시	2022. 6. 8.(수) 11:00 6. 9.(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8.(수) 09:00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박홍식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도재규 (044-201-2346)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 농식품부, 6월 9일부터 참여 희망 농장 모집 -

주요 내용

- (배경) 어미돼지(이하 모돈)를 개체별로 관리하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수급관리, 종돈개량,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 활용 가능
- (내용) 소와 같이 모돈(후보돈 포함)에도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
- (대상) 종돈장 전체(약 140개)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농장
- (지원) 시범운영 참여 농장에 사료융자금 지원 상한액 인상(6억 원→9억 원), 귀표 부착 관련 비용 및 개체별 신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귀표구입비(1천 원/마리), 귀표부착비(3천 원/마리) 및 이력신고비(2천 원/마리) 지원, 귀표 부착기 및 개체관리를 위한 현황판 보급 등
- (신청)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 또는 축산물이력 지원실(☎1577-2633)을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돼지 산업의 기록관리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 ‘어미돼지(이하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6월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간 돼지이력제(2014년~)는 소에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에서 개체별로 신고하는 소이력제(2008년~)와 달리,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모돈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기록관리가 강화되어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관련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큐알(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여한 농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장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은 약 140개 종돈장 전체와 약 3,600개의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올해 시범운영 목표는 종돈장 전체(약 140개)와 모돈을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하는 농장(약 960개)의 50% 정도로 하고 있다. 이는 농장 수로는 619개로 전체 모든 사육농장의 17%이며, 사육 마릿수로는 317천 마리로 전체 모돈과 후보돈 사육 마릿수(약 1,100천 마리)의 29%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귀표를 붙이는데 필요한 귀표 구입비(1천 원/마리), 귀표 부착비(3천 원/마리) 및 귀표 장착기를 지원하고, 이력 신고비(2천 원/마리)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참여 농가에는 사료용자금 상한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지원실(☎1577-263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모든 개체별 관리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관리, 종돈개량,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농가가 농장을 자체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수급·질병 등의 관리를 위해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많은 농가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요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안내(축산물이력지원실) ☎ 1577-2633



I. 추진배경

- 모돈에 귀표를 부착하여 개체별로 관리하면 농장의 기록관리가 강화되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사육현황 정확도가 높아져 수급관리 등에 효과적 활용 가능
- 모돈 개체별 관리로 종돈장에서 분양받은 후보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 개량을 통해 종돈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질병관리에도 효과적

II. 시범운영 방안

- (대상) 종돈장 전체(139개)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농장(약 960개)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장
 - (목표) 종돈장 전체와 전산관리 농장 중 50%를 목표로 추진
 - 목표 농장 수는 619개(17%), 사육 마릿수는 317천마리(29%)
 - (참여 유도) 개체별 관리 비용 지원 및 사료용자금 상한액 인상(6억→9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
 - * 귀표구입비(1천원/마리), 귀표부착비(3천원/마리) 및 이력신고비(2천원/마리) 지원, 귀표 부착기 및 개체현황판 보급, 돼지 개량 사업 및 정부 포상 연계
- (귀표부착) 모돈 사육농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종돈장의 후보돈 분양 시 귀표를 부착하고, 귀표부착이 어려운 경우는 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
- (이력신고) 모돈 등록·이동·출하·폐사 시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게 시스템 마련하고,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자동신고를 지원
 - * 모돈관리 등이 가능한 간편 경영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희망 농가에 보급

III. 향후계획

- 종돈장의 후보돈 분양 시 귀표 부착 및 참여자 모집(6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추진(7월~), 시범운영 평가(12월)